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중보

총기 43년
2014년 12월 5일
음력 10월 14일

월간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법등(구창희)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8년 제181호

총지중 교도복지시설 「희락원」 개원 가지 불사

“마지막까지 부처님의 품속에서 수행정진하자”



▲교도복지시설인 성남 법천사 희락원 개원 가지 불사가 11월 26일 봉행 되었다.

불교총지중의 교도복지시설인 성남 법천사 희락원 개원 가지 불사가 11월 26일 봉행 되었다. 효강 중령 예하를 비롯한 전국의 스승과 교도들이 동참한 개원 가지 불사는 총무부장 인선 정사의 집공으로 총지중 정통의례에 따라 봉행 되었다.

통리원장 법등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교도들이 열반하는 하는 그날까지 진인 염송 정진으로 죽신성불의 대도를 이룰 수 있도록 종단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성남 희락원은 서울, 경인 교도들 중 오 세대 제도를 이루거나 20년 이상 정진 한 교도를 우선으로 선발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입주하여 새로운 수행 공동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며 희락원 개원의

소감을 밝혔다.

효강 중령 예하는 법어를 통해 “수행 정진을 통해서 모든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동안 교도복지 위한 사업을 수행해야한다는 교도들의 염원이 규모는 작지만 오늘 이렇게 개원 가지 불사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입주하시는 교도들은 마지막까지 부처님의 품속에서 수행 정진하게된 것을 비로자나 부처님의 큰 가지력으로 이룬 것이라 생각 합니다.”며 노 보살님들의 안식처가 되기를 서원했다.

개원 가지 불사에 이어 효강 중령 예하, 법등 통리원장, 수현 중앙 종의회 의장 등 스승들과 김은숙 신정회 서울, 경인지회장, 신인록 부산,경남 지회장 등이 희락원 개원 테이프 커팅 진행했다.

특히 신인록 부산,경남 지회장은 지역 교도들의 뜻을 대신하여 희락원 발전 기금 200만원을 그리고 정각사 신정회 류길자 회장은 50만원을 통리원장에게 전달했다.

김종열 기자



▲교도복지시설인 성남 법천사 희락원 성금전달모습



▲ 총지중통리원장 법등정사등 3국 지도자들은 임진각에서 통일대교까지 평화행진을 하며 평화통일을 염원했다.

“분쟁반대, 화합과 평화로운 세계건설”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18일~19일 파주 도라산 봉행

“한중일 3국의 불교도는 어떠한 형태의 분쟁에도 반대하며 화합과 평화로운 세계건설에 함께 노력한다. 또 평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이를 토대로 평화통일을 이루어 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 촉진을 지지한다.”

한국대표 단장 자승스님, 중국대표단장 쉐젠 스님, 일본불교대표단장 타케가 쿠초 스님은 11월 19일 파주 도라산전망대에서 '불교사상에서 평화의 실천' 주제로 열린 제 17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평화기원법회에서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앞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가 주최하는 제 17차 한중일대회는 18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3국 교류위원회를 시작으로, 환영만찬이 열렸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성문스님은 환영사에서 "평화로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남과북, 동북아 3국은 정치 경제적 이해보다는 부처님의 진리세계를 통해 서로에 대한 자비와 화합의 의미가 먼저 상대방에게 전해지도록 스스로 노력해야할 시기이다"며 "상호 사회적인 이해와 공존의 소중한 밑거름을 제공하였고, 향후에도 3국의 우호 교류는 더욱 발전해

갈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19일 8시 30분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국제학술강연회 기조연설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준광스님은 "불교는 불살생을 모든 불자들이 지켜야할 첫번째 계로 삼을 정도로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만

큼 이념적인 평화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다"며 "이제 부처님이 보여주신 평화행과 가르침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나가 실천하고 회향해야할 시기다"고 기조연설했다.

〈2면으로〉

지 면 안내

1면 희락원 개원 가지불사

2면 한중일불교우호대회

3면 동해중학교

특목고 대거합격

5면 창교절 원정대성사

특별법문

6면 고야산 탐방기(3)

7면 일출여행 특집

11면 영화에서 불교보기

〈마스터〉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제(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시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시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시다.

총기 43년 창교절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이 땅에 밀교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의궤와 수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단 총지중은
총기43년 창교절을 맞아 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종단 중흥을 위한 대역사에 매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일시: 총기43년 12월 24일(수)

-장소: 전국 각 사원 서원당



불교총지중 통리원



한중일대회 불교사상에서 평화의 실천 학술회의와 세계평화기원법회 개최

▲ 1면에서 계속



19일 8시 30분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국제학술강연회 기조연설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스님은 "불교는 불살생을 모든 불자들이 지켜야할 첫번째 계로 삼을 정도로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이념적인 평화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다"며 "이제 부처님이 보여주신 평화행과 가르침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나가 실천하고 회향해야할 시기다"고 기조연설했다.

동국대 불교학과 박경준 교수는 '평화를 향한 불교의 사회적 실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불교에서 공업을 설명하는 이유는 자유에 따르는 책임, 권리에 따른 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가르침이다"며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양시 일산 여래사에서 점심공양을 한 뒤 오후 2시 임진각에서 통일대교까지 평화행진이 이어졌다.

또 오후 3시 도라산전망대에서 한반도와 세계평화기원법회가 열렸으며, 오후 6시 축하만찬이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이후 참가자들은 은해사와 구인사 등지를 순례했다.



“영가들이시여, 부디 극락왕생하소서.”

조계종, 세월호 희생자 수륙재 봉행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1월 29일 오후 2시 30분 팽목항에서 세월호 희생자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수륙재를 봉행했다.

이번 수륙재 추모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영가들이시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연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는 말을 남겨주신 여러분을 생각하면 애통하기 그지없다. 죽음마저 불평등한 차별 세상에서 참사의 진상조차 제대로 밝혀드리지 못해 미안하다”며 “영가시여, 참 생명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인연 따라 그 모양을 달리 하는 것이니 죽음과 이별이 아픈기는

하나 참 생명은 불생불멸하는 이 이치를 바로 아시고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소서”라고 추모했다.

유가족 대표로 나온 예지 어머니는 “오늘이 사고 난 지 227일이다. 아직 저희 가족 9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인양이 되면 반드시 찾을 거라고 믿고 있다. 인양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에앞서 영가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음악회가 열렸다. 추모음악회는 금강스님(해남미황사 주지)의 사회로 여는 소리 박필수, 춤 ‘하나’ 지진춘 김태린, 팽목항 220일

법일스님(조계종긴급재난구호봉사단 본부장/향적사주지) 진현스님 선일스님 법전스님, 노래 ‘하나’ 하안나비 등 양은선, 수륙재문, 판소리 심청가 소리 이병채/북 박필수, 추모시 미안하다 아이들아! 용서하지마라 대한민국!! 김경운, 춤 ‘돌’ 영산회상 전연순, 노래 ‘돌’ 에밀레 진진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이어 수륙재는 추모사, 수륙재문, 헌다와 헌향, 헌화, 수륙재의식, 풍등띄우기가 진행됐다. 이번 수륙재는 세월호 유가족과 진도군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모여 희생자 영가의 천도와 유가족 위로, 안전한 나라 등을 기원하는 자리가 됐다.

법화종 총무원장 혜륜당 대호스님 영결 다비식



▲ 다비식에 참석한 법등통리원장

법화종 총무원장 혜륜당 대호스님 영결 다비식이 11월 12일 부산 흥국사에서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명중, 개식, 삼귀의 반야심경 순으로 진행된 이날 영결식

영결법요는 법화종 강원총무원장 압현스님이 진행했다.

대한불교 법화종 교무부장 지관스님은 행장소개에서 "혜륜당 대호 대종사는 제 17대 18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되어 종단 안팎으로 안정과 화합을 강조하면서 종단교세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조사스님들의 숙원이었던 안정사를 총림으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던중 열반에 들어 그 유지를 후학들이 받들고 있다"고 밝혔다.

영결법요는 추도입정에 이어 중앙총회회장 보광스님은 영결사에서 "흥국사에서 오롯히 수행정진했으며, 오고가는 것이 없는 삶을 보여준 대종사님의 열반앞에 우리 법화종도들은 정정한 법을 성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중정 성파스님의 애도법어에 이어 총무원장 직무대행 도성스님은 추도사에서 "스님께서 열어주신 성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법화종문을 세우려던 당당한 가르침을 주시고

가시니 안타까움이 눈앞을 가린다"며 "속히 환도중생하시어 우리를 보살펴달라"고 애도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은 조사에서 "대화와 타협이 살아 숨쉬는 종단만들기 위해 노력하셨다"며 "불현듯 열반에 드니 서방정토 왕생극락을 기원한다"고 기원했다.

배종진 법화종 신도회장은 "대종사 큰스님 불로도 대답이 없습니다. 종단을 반석에 올려놓으려는 시점에서 가시니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디 왕생극락하십시오."라고 조사를 했다.

헌향 분향은 총지종 법등 통리원장, 원효종 총무원장 향운스님, 삼론종 총무원장 지민스님, 종단협 인권위원장 진관스님, 진언종 총무원장 혜철스님, 염불종 총무원장 원광스님, 아래종 총무원장 스님들이 차례로 했다.

영결식후 흥국사 다비장으로 발인을 했으며, 다비장에서 불이 들어가고 법화종 총무원장 혜륜당 대호스님은 한줌의 재로 화했다.



총지정보 창간 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불교총지종 통리원
- 발행인 : 구법등 | 편집인 : 구법등 | 편집장 : 김중열
- 편집국 (02)552-1080 | 팩스 (02)552-1082
- 구독 및 광고 문의 (02)552-108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눕니다

개천사	강순시	11/18	10,000
	무명씨	10/29	20,000
	무명씨	11/10	20,000
	이희권	11/4	10,000
관성사	무명씨	11/18	10,000
	인선	11/24	20,000
	황성녀	10/29	10,000
기로	대관	11/24	10,000
	밀공정	11/24	10,000
	법수원	11/24	10,000
	법장화	11/24	10,000
	법지원	11/24	10,000
	불멸심	11/24	10,000
	사홍화	11/24	10,000
	상지화	11/24	10,000
	선도원	11/24	10,000
	수증원	11/24	10,000
	총지화	11/24	10,000
단음사	법연지	11/13	10,000
밀인사	정정희	11/3	5,000
벽룡사	양정현	11/4	10,000
	양지현	11/4	10,000
삼밀사	하명순	11/17	10,000

선립사	심지장	11/19	10,000
수인사	김봉기	10/28	10,000
	무명씨	10/30	10,000
	정순득	11/13	10,000
승천사	원봉	11/13	10,000
	지선행	11/13	10,000
실지사	정우석	11/19	10,000
운천사	무명씨	11/11	10,000
일원어	이준동	11/25	10,000
린이집	강경화	10/26	10,000
	구미자	10/31	10,000
	권향덕	10/27	10,000
	권향덕	11/25	10,000
	김용미	10/27	10,000
	김지연	10/27	10,000
	김지연	11/25	10,000
	김지영	10/28	10,000
	박문실	10/27	10,000
	서선숙	10/27	10,000
	유수경	10/27	10,000
	이준동	10/27	10,000
	천소영	11/12	10,000
	최복란	10/27	10,000

	하 재 회	10/27	30,000
자 석 사	신말심	11/3	20,000
정 각 사	김문수	11/10	10,000
제 석 사	법 계 월	11/12	100,000
지 인 사	승 효 제	11/13	10,000
	지 성	11/13	10,000
	허 성 동	11/20	30,000
초 록 어	오 현 주	10/30	10,000
린 이 집	현진영	11/2	10,000
	현 진 영	11/25	10,000
	황 화 성	10/27	30,000
	황 화 성	11/25	30,000
총 지 사	법 등	11/3	30,000
	이인성	11/14	30,000
혜 정 사	최 영 례	11/20	10,000
화 음 사	강 순 란	10/27	10,000
흥 국 사	지 정	11/13	20,000
사 원 명	김 갑 선	11/19	10,000
무 기 재	박 종 순	10/28	5,000
	정 종 호	10/27	10,000
	정 종 호	11/20	10,000

10월26일부터~11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임시 중앙 종의회 및 원의회 연석 회의 종유 재산 매각의 건 등 심의

중앙 종의회(의장 수현 정사)와 원의회(의장 법등 정사)는 11월 26일 성남 법천사 서원당에서 임시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통영 단향사 이전 건물 매입 완료에 따라 기존 서원당 건물의 매각의 건을 심의 결의했다. 또한 계정 과목 신설 등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실지사 교도 탁구장 개설

겨울철 건강관리에 기여



▲실지사 탁구장

강북 중성 사찰 실지사(주교 법우 정사)는 교도들의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해 탁구 테이블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교도들은 볼공을 마친 후 서로 짝을 이루어 시합을 벌이는 등 운동에 열중이다.

실지사 주교 법우 정사는 "겨울철 실내운동으로는 탁구가 제일인 것 같습니다. 교도들의 체력 증진뿐만 아니라 화합을 이루는 방편으로 교화에 활용하고자 합니다."며 탁구장 개설의 의의를 설명했다.

부림회 회장 관득 각자는 "실지사는 교도간의 단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운동도 하고 볼공에도 용맹정진하며 즉신성불의 대도를 함께 이루고자 합니다."며 소감을 밝혔다.

실지사=홍정숙 통신원

종립 동해중학교 불교어머니회 11월 산사순례

깊어가는 가을 불심의 향기를 찾아

종립 동해중학교 불교어머니회(회장 조새미, 2-7 윤호웅 모)는 11월 8일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경남 남해로 삼사 순례를 다녀왔다.

총 17명의 회원과 김재근 교감선생님, 한문술, 박성진 선생님이 동행했다. 우리나라 3대 관음 성지인 남해 보리암, 호구산 용문사, 망운산

화방사를 차례로 순례한 불교어머니회는 붉게 물든 단풍과 함께 가을의 끝자락을 만끽했다. 또한 부처님을 향해 가족의 건강과 자녀의 학업 성취를 서원했다. 불교어머니회는 정기법회와 경전공부,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잠시 주춤했던 정각사 산악회 활동을 신임 집행부의 선출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1월 10일 산악회원 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호남의 명산 광주 무등산으로 산행을 다녀왔다.

회원들은 최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을 광주 법황사 주교 도현정사의 안내로 무진장 펼쳐진 역사와 주상절리의 풍광을 감상했다.

산행 후에는 임시회의를 열고 회장에 안한수 각자, 총무에 박정현, 김윤경 보살이 선출하였다. 또한 지도법사로 법선 정사를 추대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정각사=이상록 통신원



▲ 정각사 산악회 무등산 산행

서울. 경인교구 스승 및 신정회 간부 연찬회

교구 발전을 위한 격의 없는 토의가 이루어져



▲ 서울. 경인교구 스승 및 신정회 간부 연찬회

서울. 경인교구 스승 및 신정회 간부 연찬회가 11월 27일 오후 1시 통리원 반야실에서 개최되었다. 서울. 경인교구(교구장 법우 정사)와 신정회 서울. 경인 지회(김은숙 지회장)는 스승과 교도간의 벽을 허물고 부처님의 제자로 용맹정진하고 화합 대중을 이룰 것을 다짐했다.

서울. 경인교구 교구장 법우 정사는 인사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교도 여러분의 용맹정진과 스승님들의 인도로 총지종을 대표하는 교구로 자리매김한 것에 감사드립니다."며 한해

동안 수고하신 교도들을 격려했다.

김은숙 지회장은 "여러 스승님들의 도움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어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 단결하는 신정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스승들과 교도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연찬회 후에는 효강 종령 예하를 모시고 점심공양을 함께하며 덕담을 나누었다.

총지사=김종열 기자

종립동해중학교 민사고, 과학영재고 등 특목고 대거 합격 쾌거

학교법인 관음학사 종립 부산시 동해중학교(교장 탁상달) 3학년에 재학 중인 한유정(3-2)군과 주민균(3-7)군이 각각 "KAIST 부설 한국 과학 영재 학교"와 "민족사관고등학교"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3학년 5반의 조민규군이 부산과학고등학교에 최종 합격하 지역사회에서 본교의 위상을 드높이고 명성을

날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위의 학생들은 평소 품행이 방정하고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타 학생의 귀감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내 성적 1, 2, 3위를 다투어 왔다.고 한다.

동해중은 이 학생들 외에도 자율형 사립고와 부산외국어고등학교, 마이스터고 등에도 다수의 합격자를



3-2 한유정 군



3-5 조민규 군



3-7 주민균 군

배출하였다. 학교에서는 현수막을 내걸어 이들의 합격을

축하했다. 또한 후배들의 귀감이 되기를

바랐다. 동해중=김재근 교감 선생님

정각사 산악회 11월 무등산 등반

시작했다.

11월 10일 산악회원 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호남의 명산 광주 무등산으로 산행을 다녀왔다.

회원들은 최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을 광주 법황사 주교 도현정사의 안내로 무진장 펼쳐진 역사와 주상절리의 풍광을 감상했다.

산행 후에는 임시회의를 열고 회장에 안한수 각자, 총무에 박정현, 김윤경 보살이 선출하였다. 또한 지도법사로 법선 정사를 추대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정각사=이상록 통신원



▲ 정각사 산악회 무등산 산행



불교총지종 교도복지시설 희락원 입소안내

불교총지종이 교도들의 평생복지를 실현하고자, 새로 운영하는 성남 교도복지시설 희락원이 준공 되었습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신행생활과 함께 노후를 보내실 총지종 교도들의 입주를 기다립니다. 서울·경인 교도들 중 65세 이상으로 '오세대제도'를 성만하신 분과 입교20년 이상인 총지종 교도는 우선적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총지종 시회복지재단의 내부 심사에 통과하여야 합니다.)

-교도복지시설: 성남 법천사 내, 3층 총 15실

-입소인원: 1인 1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부부는 1실 2인 입주가능)

-편의시설: 공동세탁실, 공동목욕탕, 공동취사시설 및 1일 3식 제공
*매월 소정의 공양 준비금은 따로 납부합니다.

문의 각 사원 주교 및 총지종 통리원 전화) 02)-552-1080



▲ 개별화장실



▲ 공동목실



▲ 공동주방



▲ 생활공간

불교의 선정 34 사념처 수행

사념처 공통의 수습법

구삼심 사탐우(具三心 捨貪憂)



화령 / 철학박사 중앙교육원장

사념처 수행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세 가지 마음과 버려야 하는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을 간단히 구삼심 사탐우(具三心 捨貪憂)라고 한다.

세 가지 마음이란 열성과 정지(正知), 그리고 정념이다. 열성은 사념처 수행에 대해 열렬한 흥미를 가지고 정진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어떤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흥미와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악기 연주를 배우거나 축구 등의 운동을 배우는 경우에도 처음에는 자신이 그러한 것을 배워 보려는 뜨거운 관심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기초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고 그러한 예능이나 운동에 필요한 기술을 몸에 익힌다. 예를 들어, 기타를 처음 배울 때에도 손가락에 물집이 생기도록 반복하여 연습하고 공차는 기술을 배울 때에도 발톱이 빠지도록 연습해야 겨우 필요한 기술을 몸에 붙일 수 있다. 취미나 잡기를 배우는 데에도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괴로움에서 해탈하기 위한 기술 습득에도 이러한 열정과 노력, 정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마음을 대상에 붙들어 매어 놓기가 어려우며 사념처를 닦아도 번뇌에서 해탈할 방법이 없다.

정지라는 것은 지혜를 말하며 정확하고 치우침이 없이 그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떻게 하여야 자기의 수행에 가장 유익하고 적합한 것인지를 잘 알아차리는 지혜이다.

열성과 정지는 정념의 가장 중요한 연(緣)으로서 이것들이 없으면 정념이 뚜렷해지지 않는다. 정념과 열성과 정지는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유하자면 활을 쏘아 과녁에 맞추는 것과 비슷하다. 활을 쏘 때 우선은 목표를 바라보며 화살을 조준해야 하는 것처럼, 정지(正知)는 정확하게 치우침이 없이 안정되게 목표를 향해 조준하는 것이다. 즉, 쏘아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조준하는 것이 정지이다. 그리고는 활을 당기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정진이다. 마음을 수행의 대상에 머무르게 하면서 선정력을 기르는 것은 정념에 해당되는데, 마치 활을 쏘아 과녁을 맞추는 것과 같다. 화살을 활에 매겨 과녁을 조준한 다음 시위를 당겨 과녁에 정확히 맞추는 것과 같이 열성과 정지, 정념은 일련의 연속된 행위로서 이 세 가지가 제대로 갖추어져야만 사념처를 제대로 닦을 수가 있다.

사념처 수행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탐심과 번뇌를 버리는 것이다. 세간의 탐욕과 번뇌를 버리지 않고서는 고도의 선정

력과 지혜를 얻을 방법이 없다. 불교에서 말하는 세간은 오온, 명색, 심이처, 심팔계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일시적이며 영원하지 않으며 굳건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것에 집착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번뇌를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의 오욕락에 탐착하면서 자신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아에 집착하며 번뇌로 물들어 있으면 수행이 될 리가 없다.

탐욕과 번뇌를 버려야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잡아함경》에서는 부처님께서 공작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신다. 부처님께서 과거세에 공작으로 태어나신 적이 있었는데 수행에 대단히 힘썼으므로 사냥꾼에게 절대로 잡히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마리의 암컷 공작에게 마음이 빼앗겨 정념을 잃게 되자 사냥꾼에게 잡혀버렸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사념처는 수행자의 근본이며 청정한 처소이다. 그러므로 수행자가 탐욕과 번뇌를 버리지 못하고 항상 정념을 지니지 못하면 공작이 마음이 미혹되어 사냥꾼의 함정에 걸려 잡혀버리는 것과 같이 때문에 항상 살피고자 하는 대상에서 마음을 내려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관내외(觀內外), 관생멸(觀生滅)

《대념처경》에는 “몸에 안주하여 내신(內身)을 관조하며, 몸에 안주하여 외신(外身)을 관조하며, 몸에 안주하여 내외신(內外身)을 관조한다. 몸에 안주하여 생법을 수관(隨觀)하며, 몸에 안주하여 멸법을 수관하며, 몸에 안주하여 생멸법을 수관한다.” 라는 단락이 있다. ‘수관’이라는 변화하는 모습을 따라가며 관찰한다는 의미이다. 한 곳을 응시하고 있으면 수관은 아닌 것이다. 이 경전에서 말하는 몸(身)은 受, 心, 法과 바꾸어 쓸 수 있으며 경전의 뒷 단락에서는 身과 마찬가지로 수, 심, 법에 대하여서도 똑같은 문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內나 外, 혹은 內外는 염처의 3개 총처를 가리킨다.

내외를 관한 다음에는 생멸을 관하는데 이것 또한 사념처의 중심이다. 생멸을 관한다는 것은 관하는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하는 것이며,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의 원인을 관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심신인 오온의 실상을 여실하게 관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오온은 부단히 생멸변화하는 것으로서 무상한 것이며, 부단히 생멸의 압박을 받는 것으로서 괴로운 것이며, 오온은 생멸이 무상한 것으로서 절대 변하지 않는 ‘我’가 아닌 ‘무아’라는 것을 관찰하여 깨닫는 것이다.

칠종수관(七種隨觀)

사념처를 닦을 때 매 일념처에는 모두 7종의 방법이 있다. 이것을 칠종수관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상수관(無常隨觀)으로서 身(受, 心, 法)은 생멸무상한 것으로서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고 관하여 상상(常想)을 제거한다.

둘째, 고수관(苦隨觀)으로서 신(수, 심, 법)은 괴로운 것으로서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님을 관하여 낙상(樂想)을 제거한다.

셋째, 무아수관(無我隨觀)으로서 신(수, 심, 법)은 무아이며 비아(非我)임을 관하여 아상(我想)을 제거한다.

넷째, 염리수관(厭離隨觀)으로서 신(수, 심, 법)은 무상하며 괴로운 것이고 무아라고 관하여 신체에 대해 싫어하는 마음(瞋)을 냄으로써 신체에 집착하지 않고 번뇌에 물들지 않게 되어 환희상(歡喜想)을 낫는다.

다섯째, 이욕수관(厭欲隨觀)으로서 신(수, 심, 법)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며 무아인 것을 관하여 신(수, 심, 법)에 대해 염심(染心·번뇌)을 일으키지 않고 욕심을 벗어나며 탐애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여섯째, 적멸수관(寂滅隨觀)으로서 신(수, 심, 법)은 무상이고 고이고 무아임을 관하여 어느 정도에 이를 때에 잠시 번뇌를 제거하여 집상(集想)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일곱째, 사견수관(捨遣隨觀)으로서 신(수, 심, 법)은 무상이고 고이며 무아임을 관하여 그것에 집착하는 것을 떨쳐버리고 마음이 열반을 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총상념처(總相念處)와 별상념처(別相念處)

사념처를 닦을 때 하나의 관을 닦을 때마다 나머지 삼관도 함께 닦는 것을 총상념처(總相念處) 혹은 공상별관(共相別觀)이라 한다. 예를 들어 신부정관(身不淨觀)을 닦을 때 수(受)를 고라고 관하며, 심을 무상이라 관하고, 법을 무아라고 관하는 이러한 방법을 총상념처라고 한다. 왜냐하면 사념처에서 일체 유위법은 모두 무상(無常)이며 고(苦)이고 무아이며 공성(空性)이라고 관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신념처는 무상이고 고이며 무아

이고, 수념처는 무상이고 고이며 무아이고, 심념처는 무상이고 고이며 무아이고, 법념처는 무상이고 고이며 무아인 것이다. 무상, 고, 무아는 한마디로 공성(空性)이라는 것인데, 일체법은 모두 무자성이고 공성이므로 사념처를 관하는 것은 결국 공을 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별상념처는 사념처를 닦을 때 사념처를 나누어 닦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는 자상별관(自相別觀)이라고도 한다. 별상념처는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를 각기 나누어 닦지만 법의 총체로서 보면 일체 유위법은 무상이며, 일체 유위법은 고이며, 일체법은 모두 공성이고 무아성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총상념처의 수행과 일치한다.

21종 방식의 사념처 수행

《대념처경》 가운데에서는 21종의 방식으로 사념처를 가르치고 있다. 그중 14종의 방식으로 신념처를 해설하고 있는데 안반념(安般念), 사종위의관(四種威儀觀), 정념정지(正念正知), 관신부정(觀身不淨), 사계분별관(四界分別觀)과 묘원구관(墓園九觀)이 그것이다. 그리고 수념처와 심념처를 각 하나씩 들고 있으며, 법념처는 5종의 방식으로 해설하고 있다. 즉, 관오개(觀五蓋), 오취온, 육내입처와 육외입처, 칠각지와 사성제가 그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의 성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릇 이 사념처를 칠년만 닦으면 이과(二果) 중의 하나를 얻을 수 있다. 이 법에서 구경지를 증득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불환과는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은 사념처를 부지런히 칠년만 닦으면 구경해탈의 완전지, 즉 아라한티 되든지 그렇지 않고 번뇌가 조금 남아 있다면 적어도 불환과(不還果)는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사념처 수행은 불교 수행의 전부가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모든 수행법의 기초는 모두 사념처를 기반으로 하여 변형되었거나 개선된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념처 수행은 불자라면 반드시 닦아야 할 수행방법이며 관건은 얼마나 정확하게 사념처를 닦느냐이다. 또한 사념처를 일상생활과 결부시켜 어떻게 닦아나가느냐이다. 사념처 수행을 바르게 닦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정계(淨戒)의 준수가 필수적이다.



화령 편역 | 불교총지중 법장원 발행
정가 15,000원 | 판매가 8,000원 (10% 할인)

이 책을 읽으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저절로!!!

관세음보살 예찬문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은화하신 자비 광명 은누리 비추시네
무명 중생 괴로움 모두 살피사 빠짐없이 불고루 건져주시네”



-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 관음경
- 천수경
- 신묘장구대다라니해설
- 관세음보살 관련 각종 전언
- 음마니라네혼의 의미와 수행법

총기43주년 창교절 원정 대성사 특별법문 밀교의 삼륜신(三輪身)



▲ 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에서 재세시(在世時) 법어를 하시는 장면.

불의 권속은 대별해서 불, 보살, 명왕의 세가지다. 그런데 밀교는 현교와 달라서 문자불인 범자를 관하고 진언을 염송하여 삼밀관행을 주로하는 진실법이기에 때문에 명왕의 활동이 현저하다.

삼륜신이란 자성륜신과 정법륜신과 교령륜신을 말하는 것인데, 불위이므로 지비이덕을 갖추었고, 정법신은 보살위이므로 자비로써 섭수하며 교령신은 명왕위이므로 지혜로써 절복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불, 범, 승을 비방하고 교단을 해하거나 제도되기 열려온 강강한 중생이 있으면 이 교령신이 발동하여 항복을 받는 것이다. 원래 명왕은 불법의 수호신이기 때문이다.

여기 삼보를 해하면 안되는 전설을 몇가지 보면

신라 시대 말경에 밀교 수행승인 청대사가 길을 가다가 청어를 말에 싣고가는 마부를 만났다. 대사는 마부에게 청어 한 마리를 달라고 했으나, 마부는 거절했다. 그러자 몇걸음 가다가 말이 걸

음을 멈추고 가지 못했다. 발자국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마부는 느낀바가 있어서 대사에게 청어를 바쳤다. 대사는 그 청어를 바다에 방생하자 죽었던 청어가 모두 살아서 꼬리를 치며 갔다는 것이다.

또 위문장자라는 사람은 재산은 많으나 탐욕이 많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어느 때 밀교 수행대사가 그 집에 여러 번 탁발을 하러 갔으나 갈 때 마다 쫓겨나고 칠일째 갔을 때는 대 빗자루로 치려고 할 때 대사는 손에 들었던 바루로 그를 막았다. 그러자 바루는 여덟 조각으로 부서져서 땅에 떨어졌다. 그러고는 그 익일부터 장자의 여덟 형제는 차례로 죽어갔다.

장자는 그 탁발승이 훌륭한 대사이름 깨닫고 찾아서 참회하려고 결심하고 사방으로 찾아다니다가 잠삼암에서 그만 지쳐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 대사가 나타나서 '죄업도 다 소멸 되었으므로 무엇이든 소원이 있으면 되도록 해 줄

것이니 말하라 "하였다. 장자는 "우리 집은 호족의 집인데 대가 끊어지게 되었으니 대를 잇기 위하여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 고 했다.

대사는 작은 돌에 「위문장자재래」라고 써서 오른 손에 쥐어 주었다. 그 후 위씨 문중에 남자가 태어났으나 왼 주먹을 쥐고 퍼지 않으므로 석수사에 가서 손 퍼기를 불공했다. 그러자 왼손이 퍼지고 작은 돌을 쥐고 있었다.

또 수학여행 중 사찰 근처에서 한 학생이 돌로써 석불의 눈을 맞히고 다음날 간으로 올라 가다가 앞의 사람이 숲속의 나무 가지를 잡았다 놓는 바람에 그 탄력에 뒷사람이 눈을 맞아 그만 실명하고 말았는데 그 학생이 바로 어제 석불의 눈을 맞춘 사람이었다고 한다. 이런 등사가 모두 삼보를 해하는 과보이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 나 매겨하기 어렵다.

〈종조법설집 27p 밀교의 삼륜신〉

데스크 칼럼

우물쭈물

11월 2일은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 버나드 쇼(Bernard Shaw)가 세상을 떠난지 64년째 되는 날이다. 1876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가난한 곡물업자의 아들로 버나드 쇼는 17세기 이후 영국의 가장 위대한 극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쓴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 〈인간과 초인〉의 일부인 〈지옥에 빠진 돈 주안〉, 〈소령 바버라〉, 〈상심의 집〉, 〈성녀 조앤〉 같은 작품들은 당대의 다른 극작가들과는 견줄 수 없는 높은 수준을 갖추었다. 쇼는 도덕적 열정과 지적 갈등과 논쟁이 담겨 있는 극을 발전시켰다. 상징적 소극과 이단적인 극을 과감히 시도함으로써 연극의 개념을 새롭게 형성했다. 몽상가이며 신비주의자인 쇼의 작품에는 도덕적 열정에 관한 철학이 담겨있다.

쇼는 사회 문제에 대한 가장 신랄한 논쟁의 저자였고, 영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악평론가였으며, 탁월한 극비평가였다. 또한 정치학·경제학·사회학에 관한 비범한 논사이자 평론가였고, 가장 많은 편지를 남긴 작가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의 대담한 비평적 관점을 다른 관심분야에까지 확장하여

당시의 정치적·경제적·사회학적 사상 형성에 기여했다.

쇼는 현대화의 빠른 변화 속에서 자신의 철학과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정리하고, 많은 희곡과 논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렸다. 또한 많은 명언들을 남겨 세계화와 SNS로 대변되는 현대인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는 여운을 준다.

그가 남긴 명언 중에 "인간이 호랑이를 죽일 때는 그것을 스포츠라고 하고, 호랑이가 인간을 죽일 때는 사람들은 그것을 재난이라고 한다. 범죄와 정의와의 차이도 이것과 비슷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행동에 대한 합리화를 시도한다는 것을 꼬집었다. 불교적 생명관에서 보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모두가 중생일 뿐이다. 쇼는 철저한 개신교도였지만 남긴 말들에는 은연중 불교적 사상을 읽을 수 있다.

특히 죽음을 맞이했을 때 쇼는 "다시 산다면 나는, 내가 될 수도 있지만, 한 번도 되어보지 못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남긴다. 평생을 청교도적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윤회를 떠올리는 내생(來生)을 언급한 것은 그의 동양적 사

고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버나드 쇼는 생전에 자신의 묘비명을 지어두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쇼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이 문장은 시대와 종교를 넘어 많은 감동을 준다.

필자의 나이도 이제 불혹을 훌 지나고 지천명을 몇 해 앞두고 있다. 요즈음 들어 건강이 안 좋아 자주 병원 신세를 진다. 입원을 하면 처음 하루 이틀은 아무 생각 없이 내 몸 아픈 것만 생각한다. 그러다 조금 나아지면 입원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다. 평소에는 따갑기만 하던 햇살이 따뜻한 에너지를 전해준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행복했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로 인해 아픔을 겪지는 않았는지? 무수한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치며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불자로 살면서 공부와 수행은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번뇌 망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수행이라는 미명하에 좌복에 앉아 시간만 허송 한 것은 아닐까?

지금은 무엇 보다 앞서 수행의 도구인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다. 공부든 수행이든 생활이든 몸이라는 도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인신난득(人身難得)이라, 수 없는 생을 살면서 어렵게 받은 사람의 몸을 즉신성불의 도구로 삼아야 할 것인데, 사소한 불찰과 내 몸 중생들에 대한 배려를 저버리고 아만으로 가득한 마음은 하나 뿐인 성불의 도구를 병들게 했다.

버나드 쇼의 묘비명처럼 더 이상 우물쭈물 할 시간이 없다. 내 자신을 더 돌보고 건강을 회복하여 남은 시간 수행과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실천해야겠다.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하는 불자로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언제나 웃는 얼굴로 다른 이에게 평안을 주는 참다운 공양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는 모든 인연들에게 참 부지런히 살았던 사람이 되고 싶다.

총지종보 편집장 김종열

황금빛 불탑의 나라 천년고도 미얀마 성지순례

남방불교의 전통이 살아있는 미얀마 성지순례단을 꾸립니다. 교도여러분의 수행 증진의 기회가 되도록 무루 동참 바랍니다. (12월 20일 1차 마감 예정)

| 순례기간 | 2015년 1월 19일 ~ 23일(5일간)- 출발 1월 19일 11:30 인천 국제공항 출발

- 도착 1월 23일 09:10 인천 국제공항 도착

| 순례비 | 1,800,000원 (추가부담 없음)

| 모집대상 | 각 사원 스승님 및 교도, 일반불자

| 문의처 | 불교총지종 통리원
T. 02-552-1080~3

※ 여권유효기간은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순례일정 |

- 729개의 석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쿠도도 파고다 관광
- 미얀마 최대의 수도원인 마하간다수 수도원
- 티크나무다리 우뻛인 다리
- 마하무니 파고다 관광
- 만달레이 전망이 시원하게 펼쳐진 만달레이 힐
- 탑위 바간의 전경을 감상하는 웨산도 파고다 순례
- 이라와디 강변 선셋디너
- 남우 재래시장에서 바간 동물관광, 황금 대탑 웨지곤 파고다 순례
- 바간왕조의 화려한 건축 양식을 자랑하는 아난다 사원
- 내부 화를 돌아보는 티로먼로 사원
- 드넓은 이라와디 강변을 전망할 수 있는 부파야 파고다
- 왕국의 전설이 깃든 마누하 및 남파야 사원
- 아웅산 폭파사건의 현장인 아웅산 추모탑
- 황금 대탑 웨지곤 파고다 순례
- 아름답고 수려한 67미터 외불인 차욱타지 파고다 순례
- 진신사리 까바에 파고다 순례
- 세계 최대의 백옥으로 조성한 로카찬다 파고다 순례





일본 불교 진언종 총본산 고야산 탐방(3) 종자관 수행을 위한 공간과 공해대사의 즉신성불



곤고부지(金剛峯寺)의 창건은 진언종(眞言宗)의 시조인 홍법대사 구카이(空海)가 교화 활동의 거점으로 삼은 사찰이다. 진언밀교의 성지로서 일본전역에서 참배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곤고부지(金剛峯寺)라는 이름은 홍법대사가 불경에 나오는 '곤고부로카쿠잇사이유가유기교[金剛峯樓閣一切瑜伽瑜祇經]'라는 대목에서 따온 것이라고 전해진다. 곤고부지(金剛峯寺)란 원래는 고야산(高野山) 전체를 일컫는 명칭이었으나, 1869년 2개의 사원이 통합되면서 사찰의 명칭으로 정착하였다. 곤고부지의 전신인 세이간사(青巖寺)는 1593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건립했으며, 1863년 재건되었다. 이곳에는 역대 일왕이나 진언종관장(眞言宗管長)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다.

사찰 내에는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동서 길이 약 60m, 남북 길이 약 70m 크기의 본당을 비롯하여, 종루, 서원 등 여러 채의 건물이 있다. 류도(柳鷺)가 있는 야나기노마(柳の間)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할복 자살한 곳이다. 약 2,340m의 반류정(蟠龍庭)은 일본 최대의 석정(石庭)이다.

2004년에는 고야산 및 참배로인 고야산정(高野山町) 이시미치(石道) 등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 '기이산지의 영지와 참예도(紀伊山地の霊場と参詣道)'의 일부로 등록되었다.

일본 진언종의 종무와 많은 문화재를 비장한 본당

귀족출신으로 헤이안시대 간무천왕의 요청으로 사이초(最澄, 767-822)스님과 같이 건당사 일원으로당나라에 들어가 해과로부터 태장계만다라(胎藏界曼陀羅)를 전해받고 진언종의 종지(宗旨)를 전수받았습니다.

816년에 황실로부터 고야산의 땅을 하사받아 곤고부지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는 철학자, 종교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시인, 서예가로서도 명성을 날렸으며 최초의 서민학교를 세워 교육에 대한 열의와 실행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현밀차별관(顯密差別觀)입니다. 불교는 방편의 가르침이고, 밀교는 심비(深秘)의 가르침, 진설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현실적 목적과 함께 자신이 직접 부처를 체험하는 즉신성불(即身成佛) 사상을 궁극적 목표로 삼게는 근간이 됩니다.

구카이는 이곳 곤고부지에서 입적했으며 그의 입적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의 시신은 오쿠노인에 등신불로 안치되어 있습니다.

곤고부지의 산하사찰은 해외를 포함해 4,000여개, 종단에 소속된 승려 10,000여명, 신도는 12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찰은 많은 전란으로 여러차례 화재로 소실되기도 하였다.



한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어머니를 위해 사찰을 복원하여 청암사라고 하였으나 2년 후 곤고부지로 환원하였습다.

들어가면 갈수록 신비한 일본 사찰

전체 건물은 사찰의 격식에 맞춰 지어진 것이 아니고 정원을 가운데 두고 방과 복도가 네모로 둘러싸인 형태입니다. 지붕의 재료는 기와가 아니라 측백나무 껍질을 몇 겹씩 중복해 깔아 마치 양탄자를 깔아놓은 듯합니다. 본당에서 별채로 가는 복도에서 실내의 각 방에는 벽화를 밝은 가래산스이(정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들은 천황일족이 오면 묵는 방도 있는데 황족이 묵는 방은 벽에 아무런 무늬 없이 금칠만 해 놓았습니다. 이중 도요도미 히데요시의 양자 히데쓰구가 자살한 방이 있습니다. 큰 나뭇가지에 흰 눈이 소복이 쌓인 그림이 있는 방인데, 히데요시가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찾다가 뒤늦게 사식을 얻게 되자 그 양자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아서 스님을 만들어 이 절로 피신시켰는데 결국에는 목숨을 강요받아서 할복자살 하였다고 합니다. 가래이산스라는 정원은 물을 쓰지 않고 자연을 표현한다는 도교에 기반을 둔

형식인데, 회고 작은 자갈과 모래를 바닥에 깔고 기이한 모양의 바위들을 띄엄띄엄 놓고 자갈과 모래를 쓰레질하여운해를 만들어 신비함을 듣게 합니다.

교토의 료안지가 대표적이는데 규모는 여기가 제일 크다. 구카이 영정이 걸린 방에서 차 대접을 받고 피곤한 다리를 쉬어 간다. 영정 좌우로는 범자 양계 만다라가 안치 되어 있다.(다음호에 계속)

글, 사진= 한신대학교 겸임교수 김재용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일원 어린이집









· 맑고 밝은 어린이 · 자율적이며 더불어 함께 크는 어린이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 · 이웃, 나라,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일원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건강하고 지혜롭고 예의바른
초록반 어린이들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강남구 원평로 590길 63 리엔파크 5단지 아파트 관리동 1층
☎ 02-445-2326

“새 해” 처음 맞는 일출 여행 떠나볼까?

올 한해는 유난히도 불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제 묵은 한해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해를 맞아보자. 국내여행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일출 명소를 소개한다. 다시 떠오르는 해를 맞으며 모두가 편안하기를 서원하자.

버스나 기차를 타자니 티켓 예매가 신경 쓰이고 승용차도 교통체증이 걱정이다. 해돋이 여행을 실행에 옮기려면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 이런 수고를 덜어주는 패키지상품이 인기가 많다.

연말연초인 만큼 여유있게 미리 예약하는 것도 한 방법. 국내 여행이라 맘 놓으며 12월 중순 이후 예약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그때 가면 늦는다. 새해맞이 일출 상품 특성 상 단 1회만 있다 보니, 저렴한 가격에 명소를 두루 보는 상품은 금방 매진된다.

‘일출 명소’ 하면 정동진. 군이 북새통인 장소에 제 발로 찾아가지 말자. 못지 않게 훌륭한 해맞이 장소가 12곳이나 더 있다.

뛰어난 경관에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해돋이 명소를 소개한다. 강원도의 양양, 경북의 영덕, 경남의 남해, 전남의 여수 등 자연을 옆에 둔 지역이라 해돋이 모습이 웅장한 곳이다. 1박2일 또는 무박2일 일정 등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니 검색을 통해 각자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기 바란다.

의 수중릉. 대왕암이라고도 불린다. 화장한 뒤 동해에 묻으면 용이 되어 침입하는 왜구를 막겠다는 유언에 따라 만들어졌다. 사방에 수로가 있는데 외부는 파도가 치지만 내부는 잔잔해 전례 없는 특이한 형태의 무덤이다. 세계유산 불국사도 둘러본다. 인간세계에 부처의 나라를 그대로 재현하고자 한 신라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곳. KTX로 이동하면 시간상 유리하다.



남해 금산 보리암, 가천 다랭이마을

비단 금(錦)자를 쓰는 남해 금산. 조선 태조 이성계가 이곳에서 백일기도를 드린 뒤 왕위에 오르자 감사의 뜻으로 이름 붙였다. 강화도 보문사, 낙산사 홍련암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관음기도처이다. 온통 기암괴석인 산악공원이며, 곳곳에 등산객이 소망을 담아 쌓은 돌탑이 있다. 함께 보는 가천다랭이마을. 바다로 내닫는 45도 경사의 설흘산 비탈에 일궈진 180층 계단식 논이다. 산비탈을 깎아 만든 탓에 아직도 농사일에 소와 쟁기가 필요하다.



강원 동해 추암 해수욕장

추암해수욕장은 백사장 길이가 150m로 강원도에 있는 작은 해수욕장.

작지만 알차다는 말은 추암 해수욕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해안절벽과 동굴, 크고 작은 기암괴석의 경관이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강원 양양 하조대

하조대는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의 절벽위에 있는 작은 육각정(1955년 건립)이다. 이 곳은 파도가 넘실대는 해변에 우뚝 솟은 기암절벽이 있다. 수 십 년 된 해송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는 경승지이기도 하다. 기암절벽과 오랜된 해송을 배경으로하는 하조대 일출은 아름답고 장엄하기로 유명하여 관광객들과 사진애호가들이 많이 찾고 있다.



강원 주문진 남해항

남해항은 주문진 북쪽 6km에 위치하며, 항구 주변에 남해해수욕장과 매호라는 석호가 있다.

동해에서 잡은 싱싱한 회도 맛볼 수 있습니다특히 남해항은 전형적인 어촌마을로 항구에는 방파제와 등대, 커다란 괴암들이 많아서 일출 광경 또한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낸다.



강원 태백시 태백산

태백산은 경상북도 봉화군과 강원도 태백시 강원도 영월군과 접경에 자리잡은 해발 1,567m의 명산이다.

이 산에서 발원하는 물이 영남평야의 젖줄인 낙동강과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한 한강이다.

삼척의 오십천을 이루니 국토의 종산이자 반도 이남의 모든 산의 모태가 되는 뿌리산이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일출과 낙조는 장엄하여 세속을 떠난 천상계를 연상케 하고, 맑은 날 멀리 동해 바다를 볼 수 있는 것도 태백산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다.

전남 여수 향일암

여수반도에서도 다시 돌산대교로 이어진 전라남도 남단의 돌산도에는 여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출 풍경이 가장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향일암이 있다.

향일암이란 암자의 이름부터가 해를 향해 있다는 뜻으로 이 절경의 향일암을 안고 있는 산이 금오산으로 비록 높이는 낮아도 명산이라 일러 부족함이 없는 산이기도 하다.

정리= 편집위원회

태백산 눈꽃 트레킹

수면 위로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을 뵈는다고 느낄 수 있다. 새하얀 눈과 함께라면 어떨까. 야간산행 후 태백산 정상에서 능선 위로 솟아 오르는 일출을 감상하는 일정. 눈 덮인 나무가 우거진 눈꽃터널, 하늘과 가장 가깝다 여겨진 천제단 등 곳곳에 볼거리가 있어 지루하지 않다. 단순히 일출을 보기 위한 산행이 아닌 것.

경주 감포 문무대왕릉

동해안에서 200m 떨어진 바다에 위치한 신라 제30대 문무왕

총기43년 불교총지중 제4회 통일음악예술제

제4회 통일음악예술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25일 부산 KBS에서 봉행된 제4회 통일음악예술제가 교도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알찬 교화의 방편을 마련하는 통리원이 되겠습니다.

후원하신분(무순)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30만원
신정회 부산.경남 지회 200만원
신정회 부산.경남 신인록 지회장 100만원
정각사 신정회 류길자 회장 200만원
신정회 서울.경인 지회 100만원
신정회 서울.경인 김은숙 지회장 100만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화환과 축전을 보내 주셨습니다.

불교총지중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바라밀 공부방

청소년들의 활기찬 심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051)552-0705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

밀교연재 깨달음의 세계 · 불보살의 도량,
법경정사의 만다라 이야기 (10)

만다라의 존상(尊像)- ‘천왕(天王)’

불보살을 제외한 제존(諸尊) 가운데 지난 호에서는 명왕(明王)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명왕(明王)은 불보살을 대신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을 절복하여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므로 무서운 표정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지난호에서 소개했는데, 불보살을 보좌하며 중생을 제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와 달리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존상(尊像)이 천왕(天王)이다. 이 천왕은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불보살을 호위하고 사찰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천왕은 사찰 입구에 자리하고 있으며, 불보살을 호위하고 불법을 수호하고 있다. 즉 성스러운 도량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사찰 입구에 천왕문(天王門)이 세워져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천왕(天王)은 불교의 수호신(守護神)

사천왕이 문(門) 앞에 배치된 것은 태장계만다라의 도상(圖上)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실제로 태장계만다라에서 가장 바깥 부분인 최외원(最外院)에는 동서남북의 사문(四門)에 사천왕(四天王)이 배치되어 있다. 부처로부터 불법(佛法)의 수호를 부탁받은 사천왕(四天王)이 사방(四方)의 성문(城門)에 배치된 것이다.

만다라는 원래 고대인도의 왕성(王城)을 모방한 것으로, 성벽(城壁)과 성루(城樓)의 문(門)을 갖추고 있는데 그 사문(四門)에 사천왕(四天王)이 배대된 것이다. 특히 왕성(王城)과 왕궁(王宮)의 형태에서 비롯되었기에 왕(王)이 머무는 왕성(王城)의 중앙 한 가운데 전각을 궁전(宮殿)이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이 계시는 중앙의 자리를 금강법계궁(金剛法界宮)이라 부르며, 사방(四方) 사문(四門)에서 사천왕이 금강법계궁을 호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천왕은 원래 고대 인도에서 호세신(護世神)이라 하여 세계를 지키는 수호신이었던 것을 불교가 수용한 것인데, 특히 불교에서는 우주 세계관에 있어서 세계의 중앙에는 수미산이 우뚝 솟아 있고, 그 정상에는 도리천(兜率天)이라 불리는 신들의 세계가 있는데 이를 33천(天)이라 하며, 이 수미산의 중턱을 둘러싸고 사방(四方)에 사천왕(四天王)의 세계가 있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도리천의 우두머리 신(神)이 제석천(帝釋天)인데, 불교에서는 사천왕이 모두 제석천의 명을 받아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활동을 살펴 알린다고 믿었다.

이 제석천은 힌두교의 인드라를 말하는 것인데 불교의 힌두화, 다시 말해서 힌두교의 신들이 불교에 유입되면서 수많은 신들이 불교에 등장하게 되고 그림으로 도상화(圖像化)된 것이 바로 밀교의 만다라이며 도상(圖上)에 그려진 존상(尊像)들이 밀교의 제존(諸尊)들이다. 그래서 수많은 천들이 등장하는데, 태장계만다라에 공덕천, 비천, 이사나천, 희면천, 상취천, 기수천, 비상



▲ 경주 석굴암의 사천왕상. (출처: 문화재청)
(왼쪽부터 남방 증장천왕, 서방 광목천왕, 북방 다문천왕, 동방 지국천왕)

천, 무소유처천, 식무변처천, 공무변처천, 일천, 제석천, 수문천, 지국천, 대법천, 화천, 증장천, 염마천, 대지재천, 수천, 대면천, 난파천, 광목천, 변재천, 구마라천, 월천, 고천, 가천, 락천, 풍천, 광음천, 대광음천, 도술천, 타화자재천, 지만천, 비사문천, 환희천 등이 있다. 우주 세계의 제천(諸天)들이 모두 만다라상에 존상(尊像)으로 등장한 것이다. 또한 이들 제천(諸天)에는 짝을 이루어 수많은 천녀(天女)들도 등장하고 있고 권속(眷屬)들로서 태자(太子)와 사자(使者)들이 따르고 있다.

천왕(天王)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천왕(天王)이 사대천왕(四大天王)이다. 줄여서 사천왕(四天王)이라 한다. 동방의 지국천왕(持國天王), 남방의 증장천왕(增長天王), 서방의 광목천왕(廣目天王), 북방의 다문천왕(多聞天王)이 사대천왕이다. 이 가운데 북방의 다문천왕을 비사문천왕(毘沙門天王)이라고도 한다. 천왕상(天王像)의 특징은 모두가 장군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왕이 계시는 왕궁을 무관(武官)인 장수(將帥)가 지키고 있듯이 왕성을 모방한 만다라상에서도 장수가 불보살을 호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사천왕은 장수의 모습을 취하고 불법수호, 중생제도와 악인(惡人)을 불법으로 인도한다

대체로 사천왕은 머리에 보관(寶冠)을 쓰고 있고, 몸에 갑옷을 걸치고 있다. 어깨, 가슴, 배, 허리, 정강이 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갑옷으로 치장되어 있는데, 이를 견갑(肩甲), 흉갑(胸甲), 복갑(腹甲), 요갑(腰甲), 경갑(脛甲)이라 한다. 손에 든 지물(持物)은 여러 가지인데 장수답게 칼, 창 등은 물론이고 공능(功能)과 역할에 따라 보탑(寶塔)과 보봉(寶棒) 등을 쥐고 있다.

인도에서는 사천왕상에 대한 규범이 일정하지 않아서 귀족의 형상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았으나 서역(西域)을 거쳐 중국에 이르러서는 갑옷을 입은 무장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지물(持物)이나 존상(尊像)의 형태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우리나라 사찰의 사천왕문(四天王門)에서 보이듯 갑옷을 두르고 무기 등을 들고서 발로 악귀를 밟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천왕상의 존명(尊名)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천왕들이 들고 있는 지물(持物)인데, 이는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다. 사천왕의 방위(方位)와 지물(持物)은 통일신라에 제작된 석굴암 사천왕상에 의거해 검을 든 천왕이 동방 지국천왕, 금강저를 든 천왕이 남방 증장천왕, 여의주를 든 천왕이 서방의 광목천왕, 탑을 든 천왕이 북방의 다문천왕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최근 학계에서는 사천왕상의 지물(持物)과 존명(尊名)이 다르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사찰에서도 사천왕상의 지물과 존명에 대해 혼

란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나 지면 관계상 자세하게 살펴볼 수 없으므로 연재 동안에 차후 설명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언급한다.

대체로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통틀어 주로 등장하고 있는 지물로는 칼, 화살, 창, 금강저(金剛杵), 탑이나 비파, 용과 여의주, 당(幢)과 탑 등이 있는데, 우리 나라 사찰에서 사천왕의 방위와 지물은 천왕문 입구에서 보아 오른쪽의 첫 번째가 동방의 지국천왕으로 비파 또는 검을 들고 있고, 두 번째가 북방의 다문천왕으로 탑 또는 비파를 들고 있으며, 왼쪽 첫 번째가 남방의 증장천왕으로 검(劍) 또는 용과 여의주를 들고 있고, 두 번째가 서방의 광목천왕으로 용과 여의주 또는 탑을 들고 있다. 이 또한 사찰마다 다르다.

이 사천왕은 각기의 역할이 맡겨져 있는데, 대체로 동방의 지국천왕은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역할, 남방의 증장천왕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덕을 베푸는 역할, 서방의 광목천왕은 악인(惡人)에게 고통을 주어 구도심(求道心)을 일으키게 하는 역할, 북방의 다문천왕은 어둠속을 방황하는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사천왕상이 우리나라에 처음 조각된 것은 통일신라때부터...

우리 나라에 사천왕상이 만들어진 때는 사천왕 신앙이 수용된 600년경을 전후해서라고 볼 수 있으나 크게 성행한 것은 통일신라 때부터라고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삼국유사』에 보면, 명장(名匠) 양지(良志)가 영묘사(靈廟寺)에 사천왕상을 조성하고, 이어 사천왕사에도 건립하였다는 기록이 나오며, 682년에 세워진 감은사(感恩寺)의 삼층석탑의 사리함(舍利函)에 장엄된 금동사천왕입상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특히 신라 경덕왕 10년(751)에 당시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창건을 시작하여 혜공왕 10년(774)에 완공한 석굴암에도 사천왕상이 조각된 점을 논거(論據)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조각은 석탑의 탑신부에도 새기기 시작하였는데, 송소곡사지 삼층석탑, 황룡사 서편 폐사지 1층 탑신의 사천왕상, 원원사지 삼층석탑의 사천왕상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9세기부터는 고승들의 묘탑에도 사천왕상을 새기는 일이 다반사였다. 844년 전흥법사(傳興法寺)의 염거화상탑(廉居和尚塔), 868년 쌍봉사(雙峰寺)의 철감선사탑(澈鑑禪師塔), 884년의 봉암사(鳳巖寺) 지증대사탑(智證大師塔), 894년 실상사(實相寺)의 수철화상탑(秀澈和尚塔) 등에 조각된 사천왕상들이 있다.

(다음호에서는 태장계만다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왜 천도불공을 올려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상장례와 49재의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서방정토 극락왕생을 위한 천도불공 안내서!

서방정토 극락왕생을 위한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공



- * 임종 시에 불공을 해드려야 하는 이유
- * 재(齋)란 무엇인가?
- * 49재의 의미, 유래와 근거
- * 49재를 행하는 이유
- * 49재는 어떻게 행하는가? (절차와 방법)



법공 종사 · 법경 대정사 共著
불교총지중 밀교연구소 발행/ 비매품/ 59쪽
구입문의 : (02) 552-1080~3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추진위 출범식

10. 27법난기념관 건립등 총예산 3500여억원 소요



▲ 조계사 성역화 불사 출범식 모습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11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봉행했다.

이번 추진위원회 출범식은 ‘건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조성사업’과 ‘10. 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계획이 일정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종단의 굳건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동시에 사업의 성공적인 회향을 기원하기 위해 준비했다.

총본산 성역사업의 목적은 한국불교 중심도량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광화문, 경복궁, 종로 인사동을 건지동과 연계하여 서울의 역사관광문화를 활성화하고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건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조성사업은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10.27법난기념관 사업은 국무총리소속 10. 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범식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청정도량 결계를 위해 화엄경의 호법선신을 모시는 신중 청을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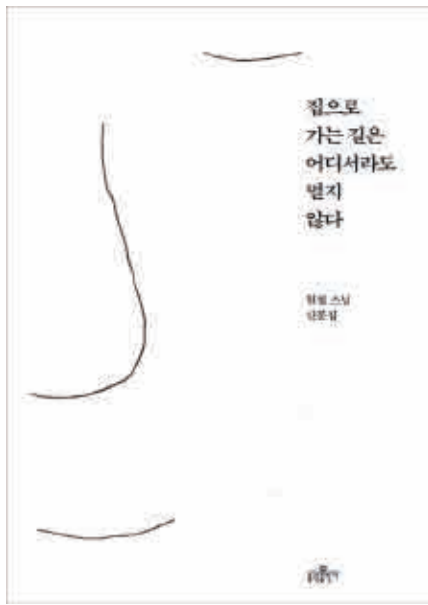
신중 청은 신중을 모셔 안으로는 부처님께 귀의하여 수행 정진하고 밖으로는 불법을 통해 도량을 청정하게 수호하는 불교의 전통의례다. 오후 2시 본 행사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중정 스님의 치사를 시작으로 조계종 총본산의 변천사와 미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조계사 주지스님을 법주로 ‘팔방 청정도량 결계의식 봉행 후’ 참여대중들과 함께 도량을 행진했다.

한편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 계획 배경은 2008년 3월 28일 ‘10.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사업이 추진됐다. 이에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거행하여 종단의 의지를 굳건히 세우고자 계획했다.

쉽과 중도를 생각하게 하는 원철 스님 첫 산문집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



"계절의 흐름을 읽듯 인생의 흐름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짧은 가을이지만 겨울 준비를 위한 시간으로는 충분하다. 인생의 중년기도 길지 않지만 한 호흡 고르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는 충분하다." (76쪽)

정확하고 간결한 글로 쉽 주는 원철 스님이 첫 산문집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를 펴냈다.

원철 스님은 해인사승가대학에서 학장 소임을 맡으며 산사로 돌아가 처음 펴낸 이번 산문집에는 스님의 일상과 수행, 공부, 여행 단상을 담았다. 누구나의 일상처럼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힐링과 충고에 지친 요즘 우리들에게 맑은 차 한 잔 같은 ‘쉽’, 그리고 반짝이는 ‘깨우침’을 함께 느낄 수 있다.

원철 스님은 노마드(homo-nomad) 스님이다. 한 곳에 머물지 않는 수행자라는 것, 그리고 생각의 이동과 변화에 막힘없이 자유롭다는 뜻이다. 그 자유로움은 지금, 이곳에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에 기본한다. 늘 지금을 바로 보고 성실하자는 뜻을 ‘집’이라고 표현한다면,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집이다.

스님의 글에는 요즘 대세인 힐링 혹은 멘토의 아픈 충고가 없다. 스님은 어떤

깨달음도 강요하지 않는다. 잘하라고, 노력하라는 말도 하지 않는다.

이번 산문집은 ‘중도’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가만 보면 인생은 두 가지의 변주로 흐른다. 우리의 불행은 한 가지만 보기 때문이다. 삶 속에 죽음이 있으며, 잃었으되 얻는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오히려 많은 것이며, 차갑지만 뜨겁기도 하고, 한 방울의 물에서 바다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중도의 지혜를 터득하면 인생의 어느 자리,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다. 산승이건 도승이건, 머무는 자리가 어디건 성실함을 다하는 수행자인 원철 스님을 통해 하나에서 둘을 보는 마음의 눈을 떠보자.

스님은 "시작과 끝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말은 익히 들어온 말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아름다운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지혜와 격려라는 것이다.

전통문화 통해 청소년들에게 불교 우수성 인지

청소년문화재지킴이 수기 · UCC 공모전



▲ ucc우수작 캡처사진

사단법인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스님)는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 활동 수기, UCC 공모전이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단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재는 불교문화가 70%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청소년들에게 문화재에호활동을 독려하고 사찰과 불교문화를 접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 이번 공모전의 취지다.

공모전은 청소년들이 문화재보호한 활동을 수기와 영상으로 기록 하여 공모한 것을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발하여 문화재청장상, 포교원장 상, 동국대총장상, 한국 청소년협의회장상, 파라미터총장 및 회장 상을 시상하고 자료집을 발간함으로써 문화재 보호에대한 자부심을 심어 주기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사경 공모전은 전국 300명의 청소년 지킴이단과 학생들이 공모하여 청소년문화재 지킴이 수기공모전에 12명, UCC공모전에 9팀이 선정되었다.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 수기공모전과 UUC공모전의 심사는 주로 진정한 마음으로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하였는지와 지킴이 활동을 통해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배워 성숙된 가치관과 역사관을 길렀는지도 보았고, 사소한 봉사활동 하나하나가 문화재를 보호하고 지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문화재 보존과 계승, 발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의식의 변화를 보였는지에 대해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재지킴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11월 30일 문화재청과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가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부터 파라미터가 청소년문화재지킴이활동 위탁관리를 맡게 됐다.

한국불교기자협, 기자상및 20주년 공로상 수상

12월 1일 오후 7시 서울 STX남산타워 만복림서



▲ 기자상 수상자들의 모습

한국불교기자상 운영위원회(위원장 변대용)는 11월 17일 회의를 열고 우리불교신문 김원우 국장과 불교신문 이성수 · 여태동 부장, 윤완수 금강신문 편집부장 등 4명에게 20주년 근속상을 수여했다.

한국불교기자상 공로상및 기자상 시상식과 해충장학금 수여식은 12월 1일

오후 7시 서울 STX남산타워 만복림에서 전태종 총무원장 춘광스님, 조계종 호계원장 일면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스님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가했다.

또 2014 한국불교기자상 대상(선원빈 기자상)은 법보신문 권오영 기자가 ‘조계종 개혁 20주년 - 끝나지 않은 여정’으로 수상했다. 기획해설부문 불교신문

이준엽 · 홍다영 기자의 ‘영화 명량을 통해 본 임진왜란과 의승군’, 취재보도부문 현대불교신문 신중일 · 이나는 기자의 ‘불축특집 - 한국불교 포교합시다’특별상 법보신문 김규보 기자의 ‘바람의 고원 티베트를 가다’등이 수상했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이강식)는 11월 17일 불교기자상 심사위원회의를 열고 접수된 19작품(기획 · 해설 부문 12개, 취재 · 보도 부문 7개)을 심사, 2014년 한국불교기자상 수상자를 선정발표했다.

한국불교기자상 심사위원은 선상신 대구대 초빙교수(국가디자인연구소장), 김용철 중앙승가대 교수, 황수경 동국대 강사가 맡았다.

한편 ‘해충장학금’은 본인장학금 부문에 총지종보 김종열 기자, 자녀장학금 고등부문에 불교저널 김종만 편집장의 자녀 김보은 군(논산 대건고 1년), 중등부문 법보신문 김형규 부장 자녀 김나연 양(광양중 1년)이 각각 수여됐다.

초심자들에게는 ‘수행입문서’로,
모든 중도(宗徒)들에게는 ‘수행지침서’로 삼을 수 있는 총지종의 수행 총서(叢書)!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육자의귀염송

『육자의귀염송』으로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고,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육자의귀염송의 순서와 방법, 그 의미’와 함께

총지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진언수행의 목적’, ‘각종 진언의 공덕’, ‘염주의 공덕’, ‘사원에서 예절’, ‘서원당 예절’, ‘불공 예절’ 등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실고 있다.

법경 대장사 지음/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발행/ 정가 10,000원 / 114쪽
* 구입문의 : (02) 552-1080~3

유물로보는 비로자나불



▲ 보물 제990호 상주 남장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제990호 상주 남장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尙州 南長寺 鐵造毘盧遮那佛坐像)
소재지 : 경북 상주시 남장1길 259-22, 남장사 (남장동)
시대 : 조선시대

경상북도 상주시 남장사 보광전에 모셔진 철조비로자나불좌상으로 지금은 불신만 남아있다.

얼굴은 단아하며 어깨에 달을 듯 긴 귀는 목에 3줄로 새겨진 삼도(三道)와 잘 조화를 이루어 위엄을 자아낸다. 양 어깨에 걸쳐 입은 옷은 부드럽게 흘러내려 양쪽 무릎을 덮고 있는데, 주름은 팔과 다리의 끝부분에만 나타났을 뿐 대담하게 생략하고 단순화시켰다. 손은 오른손 검지를 왼손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일반적인 비로자나불상과 비교하여 손의 위치가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엄숙한 얼굴 표정, 차마를 묶은 띠매듭, 왼쪽 어깨에 드리워진 U자형 옷자락, 단아한 얼굴, 장대한 체구 등은 조선 초기의 불상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조선 철불상의 귀중한 예로 높이 평가된다.

자료제공=문화재청



내용참조: "불교총전" 자기에 대한 덕의편 208p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7. 시무외수(施無畏手)진언



옴 아라나야 흠 바탁

만약 어느곳에서든 두려움이 있어 안온을 구하려거든 이 진언을 외우라



금화보살 버섯 맛간장

재료

표고버섯 · 팽이버섯 · 느타리버섯 · 송이버섯 · 다시마 · 무 · 양파 · 통마늘 · 통생강

버섯의 효능

장운동 · 변비 · 콜레스테롤 · 혈당 당뇨 · 발암물질배출
숙취해소 · 항암효과 · 탈모 · 구토 · 설사 ·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하고
간질환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바다의 불로초 다시마의 효능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주고 당뇨예방
갑상선예방 · 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

가격

대(大, 1.8리터) 20,000원
소(小, 0.9리터) 10,000원
※ 10병 이상은 무료 배송 합니다.



포항 수인사 교도 금화보살입니다
20년 요리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버섯 맛간장' 을 선보입니다. 모든
재료 하나 하나 정성껏 준비해 교도 여러분의 건강을 서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많은 분들이 맛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문 전화 (054)231-2520
전화주문 요리의 명가 다미쿡(DAMI-COOK)



영화에서 불교보기 <38>

상상과 기억을 지나 현재로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마스터>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마스터>(미국, 2012)는 지난해 베니스영화제에서 은사자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이때 그랑프리리는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차지했었지요. 우연의 일치인지 1, 2등을 차지한 두 영화는 닳은꼴을 보였습니다. 둘 다 종교를 소재로 했으며 해결책은 불교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피에타>는 크리스티교를 소재로 하였지만 개인의 구원이 신의 의지가 아니라 인간의 몫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마스터>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마스터>는 톰크루즈로 인해 유명해진 사이언톨로지라는 종교에서 힌트를 얻어 만든 영화입니다. 창시자인 론 허버트를 소재로 택했던 영화가 도달한 최고점은 뜻밖에도 불교의 현재중심주의였습니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며, 순간에 완전히 머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삶의 마스터라는 결론은 어느 모로 보나 불교적입니다.

영화 <마스터>의 주인공인 프레디 (호아킨 피닉스)는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콜 중독자고,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있으니, 태생부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실상가상으로 전쟁에 참전했다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얻게 됩니다.

프레디는 성적인 상상력으로 머릿속이 꽉 찬 인물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교관과 상담할 때 교관이 보여주는 모든 사진을 성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정상인이 봤을 때는 전혀 성과 관련 없는 사진이 그의 머릿속에서는 다르게 읽히는 것을 보면서 그의 비정상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정신병원에 넣어 두 하등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정신적 이상 징후를 보였습니다.

화학 약품과 알콜을 섞어서 만든 독주도 그의 뇌를 더욱 파괴하였습니다. 현실과 환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해군에서 근무할 때 배가 잠시 바닷가에 정박한 적 있었는데, 그때 동료들이 장난삼아 모래로 여자의 나체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프레디는 모래여자를 현실에 존재하는 여자로 인식한 것인지 그 모래여자와 관계를 갖는 모션을 취했습니다. 장난이라 생각하며 지켜보던 동료들은 점차 현실과 환상을 구별 못하는 프레디의 괴이한 행동에 혐오감을 보였습니다. 프레디가 미쳤다는 것을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프레디가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환상 속을 헤매는 것은 과거에 의식이 얽매어 있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해서 고모와 근친상간을 했던 것도 그에게는 트라우마였고, 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람을 죽였던 것도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러나 프레디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는 사랑했던 여자 도리스였습니다. 랭캐스터와의 면담에서 도리스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그는 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도리스와의 추억을 얘기하는가 하면, 때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남았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여인과의 이별이 프레디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인 이유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갔습니다. 이 보다는 고모와의 근친상간이나 전쟁경험 등이 더 큰 일로 보이는데... 그런데 영화는 도리스와의 이별이 프레디의 정신해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크리스티교의 원죄와 연관시켰습니다. 크리스티교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원죄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시작됐고, 그 후 인간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 가도록 운명지어졌습니다. 프레디가 도리스와의 이별 후 급격하게 타락하고 정신적으로도 망가지는 것은 결국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의 운명과 닮았다고 봅니다. 에덴에서의 추방이 인간에게서 가장 큰 트라우마인 것처럼 프레디도 도리스와의 시절을 가장 그리워하면서 또한 현실과의 괴리가 그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프레디는 병적인 한 인간이 아니라 보편적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프레디가 성적 상상력으로 가득 찬 인물이라고 했는데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인간의 의식을 모두 성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 프레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인간의 모습을 좀 과장되게 보여줬을 뿐인 것입니다.

결국 도리스에 대한 프레디의 반응을 통해서 보면 인간에게서 가장 큰 트라우마는 원죄인데, 인간이 자유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또한 이 원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프레디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불안정한 인간인 자신을 구원할 마스터를 만난 것입니다. 마스터에게서 프레디는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면담을 통해 자신의 트라우마를 확인합니다. 지금까지는 트라우마가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왔는데 마스터는 프레디로 하여금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원인에 계속 접촉하도록 훈련했습니다. 도리스라는 여자를 평정심을 갖고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서 떠올리게 했습니다.



마스터의 훈련이 효과를 발휘한 것인지 프레디는 생각하는 것조차 거부했던 도리스를 만나러 갔습니다. 도리스와 헤어지고 7년 만입니다. 그런데 도리스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돼있었습니다. 도리스의 이모가 전해주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도 프레디의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모를 통해 도리스 소식을 전해 듣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과거와 결별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졌고, 트라우마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죄의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인간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인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프레디는 술집에서 만난 여자와 관계를 갖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적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한 번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던 프레디가 비로소 현실의 여자와 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는 프레디가 비로소 현실을 살게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프레디는 마스터가 그에게 했던 것처럼 여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름이 뭐냐?'고 몇 번씩 묻습니다. 이는 진정한 자신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프레디의 마스터인 랭캐스터의 고객 중 한 사람은 랭캐스터가 "이름을 말하세요" 하고 몇 번씩 반복하자 자신이 누구인지 헷갈린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자기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자신의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즉 무한 반복되는 이 질문은 사회적 자아에서 근본 자아로 의식을 전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첫 장면에서처럼 프레디가 모래로 만든 여자의 나체 옆에 눕는 걸로 끝납니다. 그냥 조용히 누워있는 뿐입니다. 모래 여자를 그냥 모래로 인식하는 것이지



요. 모래를 모래로 보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경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가리고 있던 모든 막을 제거했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비로소 그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어떤 프리즘을 통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경지에 이른 것이지요. 과거를 극복하고, 환상을 극복하고 결국 현재와 만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지가 불교가 도달하려고 하는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많은 인간 프레디는 영화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정신병원에 갇혀야 마땅했던 프레디는 마침내 그의 마스터인 랭캐스터를 넘어서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코즈'라는 신흥종교의 창시자이자 프레디의 마스터였던 랭캐스터는 '너는 마스터가 필요 없는 최초의 인간' 이라고 프레디에게 말했습니다. 프레디가 마스터인 자신조차도 알지 못한 자유를 획득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권위나 재물, 사람 등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프레디의 모습은 그야말로 새처럼 자유로우면서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자기 삶의 마스터가 된 것이지요. 또 다른 마스터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는 분명 불교적 인간상이었습니다.

김은주 <자유기교>



삼보전에 귀의합니다_0_

(주) 주원항공여행사는 13년 전통의 노하우를 자랑하는 해외여행 전문업체로서 불교성지순례 전문, 공무원해외연수, 공기업 및 일반기업 시찰, 패키지여행, 기획여행, 항공권 발권 및 전세계 비자수속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교성지순례 및 기타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저희 "주원항공여행사"를 찾아주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모실것을 약속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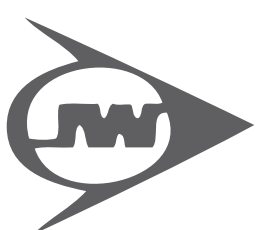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 주요업무 안내 - [예약문의 : TEL (02)733-2999]

- ▶ 전세계 불교성지순례행사
- ▶ 공무원해외연수 및 공공기관 해외연수
- ▶ 기업체 및 일반 해외여행
- ▶ 친목단체 맞춤형 기획 해외여행
- ▶ 항공권 예약 및 발권 업무
- ▶ 전세계 비자수속 대행 업무

● 담당자 안내

- ▶ 대표이사 김 인수 (H. 010-3218-5474)
- ▶ 불교담당 총괄이사 (H. 010-8443-9001)



(주) 주원항공여행사
JUWON TRAVEL AGENCY

TEL:(02)733-2999 / FAX:(02)733-2998 / 홈페이지 : http://juwontour.co.kr / E-mail :juwon2999@hanmail.net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84-1 삼송빌딩 8층

불교총지종 본산 '총지사' 서원당



불교의 생활화·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서원합니다.



불교총지종

다가오는 총기 44년 새로운 모습으로
교도님들과 전국의 불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원정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정통밀교의 흥포를 위해 심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한 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교도님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총지종보 편집위원회 **합장**
전국 통신원 일동


불교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우) 135-928

Tel: 02.552.1080~3

Fax: 02.552.1082